

아랍의 삶과 문화 '스크린 여행'

시와 수행 그리고 노래와 삶

25일 담양 시집전문독립서점 '산아래 詩 연우책방' 콘서트

ACC, 25일~27일 극장3 '제14회 아랍영화제'



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됐으며, 베니스 국제영화제 후반작업상을 수상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상영되는 무함마드 사리프 트라이박 감독의 '작은 행복'도 의미있는 작품이다. 아버지를 잃은 열일곱살 누피사는 어머니와 함께 유서 깊은 저택에 거주하는 어머니 부인과 함께 살게 된다. 그곳에서 어머니나 부인의 손녀 페투마를 만나 특별한 우정을 나누지만, 자신의 결혼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관계가 흔들린다. 사랑과 우정, 전통과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통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과 함께 따뜻하고 관능적으로 구현했다.

27일 상영 작품은 여성 3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요르단 영화 '살마의 집'. 팔레스타인계 요르단 감독 하나디 일리안의 작품으로 뺨을 만들어 파는 살마, 워킹맘인 그녀의 딸 파라, 그리고 전 남편의 현재 아내인 랍야가 장례식을 계기로 한 집에 모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세 여성이 충돌과 오해 끝에 연대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날 마지막 작품으로 튀니지 출신 마르얌 주브르 감독의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가 상영된다. 튀니지 북부 외딴 마을에 사는 아이사는 전쟁터로 떠난 두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몇 달 후, 첫째 아들이 니갑을 쓴 임신한 아내와 함께 돌아오면서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공동체의 불안을 외면한 채 가족만을 지키려는 아이사의 선택은 갈등을 부른다.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평범한 가정과 공동체에 남기는 상처를 예술적으로 그렸으며, 2024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분에 초청됐다.

영화뿐 아니라, 이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총 세 차례 열리는 '시네토크'에서는 조선대 글로벌인문대학 황병하 명예교수와 남기형 배우가 패널로 참여한다. 영화 상영 전 진행되는 시네토크에서는 아랍 문화의 배경, 인물의 서사, 연출의 의도 등을 함께 짚으며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아랍영화제는 아랍문화의 예술성과 내면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며 "서아시아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아랍 세계의 다층적인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개막을 시작으로 부산 영화의전당, 광주 ACC 순으로 순회 상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료 무료, 1인당 최대 4매 예매 가능. /장혜원 기자 hey1@

국내 유일 아랍권 영화제

개막작 '아르제' 등 총 5편 상영

'시네 토크'도...관람료 무료

한 편의 영화는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다. 스크린 가득 담긴 생경한 도시의 풍경과 언어, 익숙지 않은 일상의 리듬이 관객의 감성을 움직인다. 멀리 떨어진 세계의 삶과 문화를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여행이 된다.

낯설지만 매력적인 아랍 세계를 영화로 만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극장3에서 '제14회 아랍영화제'를 연다. 국내 유일의 아랍권 영화제인 이 행사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문체부와 ACC 등이 공동 주관한다.

'아랍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랍 사회의 현실과 문화를 담은 영화 5편이 상영된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동체의 이야기, 가족과 종교, 정체성의 균열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파노라마가 모티프다.

우선 개막작은 25일 오후 2시에 상영되는 레바논 미라 사입 감독의 '아르제'다. 파이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싱글맘 아르제는 아들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언니의 딸자를 훔쳐 스쿠터를 사준다. 그러나 곧 스쿠터를 도난당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베이루트의 거리로 나선 모자는 도시 곳곳에 얽힌 중과 갈등과 혼란한 현실을 마주한다. 감독은 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레바논 사회의 복잡한 민낯을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이어 튀니지 북동부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무화과나무 아래' (26일 오후 2시)가 스크린에 오른다. 에리제 세히리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무화과 수확을 위해 과수원에 모인 이들이 엮여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다. 노동 중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 연대, 갈등 등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펼쳐진다. 특히 여성들 간의 유대와 우정의 진폭, 감시의 시선을 피해 드러나는 자유로운 몸짓이 은근한 여운을 남긴다. 비전문 배우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연기와 시적



콘서트에 출연하는 송미령 시인, 수안 스님, 정연우 시인, 정상록 가수(왼쪽부터).

지난 2014년 음반을 발표한 수안 스님은 노래로 대중과 소통하는 수행자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불러서 우승을 했다. 현재 영암 지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시집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를 펴낸 송미령 시인은 자연과 삶의 여백을 노래하고 응시한다. 우포늪에서 버들국수를 삶는 시인은 낮은 자세로 세상과 소통한다. 시인이 버들국수를 삶는 것은 배가 아플 때면 버들 삶은 물로 쓸어주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버들로 국수를 삶는 시인에게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노래하는 스님과 버들국수 삶는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콘서트가 열린다. 담양의 숲길 속 시집전문 독립서점 '산아래 詩 연우책방' (대표 정연우, 연우책방)에서 오는 25일 오후 5시.

'버들국수 삶는 시인, 노래하는 스님 출가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진심이 담긴 언어와 고백, 노래로 관객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대답은 정연우 시인이 맡는다. 시집 '민약당신'을 통해 자신만의 사유를 시로 풀어내는 작업을 펼쳐온 정 시인은 경영학 박사이기도 하다. 정 시인은 이번 콘서트에서 시와 수행, 노래와 삶, 예술과 일상, 인문학과 사유 등 다채로운 키워드로 깊이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정상록 가수가 출연해 '님은 먼 곳에'를 라이브로 들려주며 깊고도 잔잔한 감성을 선사한다.

한편 정연우 대표는 "무더운 여름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며 감상할 수 있는 여름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나 불심, 인문학, 시, 노래로 어우러지는 뜻깊은 무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시' 시정신 구현 동주문학상 공모

광주일보·시산맥 주관 8월 31일까지...해외작가·신인상도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10회 동주문학상' 작품 공모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6년 윤동주<사진>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제정한 '윤동주서시문학상'이 모태가 됐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모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집 발간 형식으로 정리한 원고(시 50편 이상)를 메일(poemmtss@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품집은 '달을 쓰다' 시인선으로 발간된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오는 9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0회 동주해외작가상'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한글)이며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국내·외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발간이나 문예지에 게재 후 활동 포함)이면 응모할 수 있다.

5편 이상 10편 이내 작품(2024년 가을호(월간 8월호)~2025년 여름호(월간 7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그 기간에 발간한 시집속의 작품, 신작시)이여야 하며 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다. 이메일(poemmtss@naver.com)로 접수해야 하며 별지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작품은 계



간 '시산맥'에 게재된다.

'2025년 동주해외신인상'도 공모한다. 시 부문(한글) 창작시 10편 이상이며 신인(해외 거주자가 해외이고 해외 등단 10년 이내인 자)이며 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다. 어떠한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

여야 하며 시상일 전까지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poemmtss@naver.com)로만 가능하며 별지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특전으로 계간 '시산맥' 등단 시인으로 인정되며, 기발표작이거나 표결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와 상금을 취소한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을 맞은 동주문학상은 그동안 윤동주 시인의 시정신을 선양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며 "올해는 10회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시인, 시인 지망생들의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계간 '시산맥'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다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